

- 모호함, 기억과 망각의 경계

김명수

어젯밤 잠자리에 들었을때, 슬며시 얼굴을 어루만지는, 반쯤 열린 창을 통해 들어온 바람속에 묻어온 친숙한 냄새, 분명 어디선가 느꼈었다. 머리는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있고, 감성은 그 기억에 반응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기억이었는데는 알 길이 없다. 아주 어릴 적 할머니 집 마루 모기장 안에 누워서, 아니면 2년전 별문트에서 맡았던 해질녘의 냄새 같기도 한데,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그 향수를 느끼려고 해 보아도 도무지 그 정체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기억 속에 갈무리 해두려 노력한다. 그래서 훗날 다시 이런 상황이 오면 이 밤을 기억하고, 그 '어떤 것'의 모호함을 떠올릴 수 있게 말이다. 하지만 이 역시 부질없는 짓이다. 이른 아침의 망각은 이 어리고 미약한 흔적을 기억 저 멀리 보내버리고, 뭔가 아득한 느낌만을 남긴다. 머릿속에 손을 넣어서 쪽 뺨으면은 아슬아슬하게 닿을 것만 같은 위치에 무엇인가 부유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역시 하루를 보내면서 전부 망각하고 만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것은 나의 작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많은 생각과 기억의 흔적들은 분명 내 머릿속 곳곳에 있지만, 막상 찾고 싶을 때는 다들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결국 '모호함'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어떤 것이 모호하다라는 사실은 흥미로운 것이다. '어떤 것'의 모호함을 '인식'하는 과정은 '어떤 것'의 존재를 '인지'하는 과정의 시작이다.

내게 있어, 분명한 생각은 없다. 분명하다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이 아득한 모호함들을 삶에서 배제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먹는 것, 자는 것, 자르는 것, 사랑하는 것, 걷는 것, 믿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마시는 것, 발견하는 것, 느끼는 것, 깨닫는 것, 분노하는 것 ... 이 모든 것을 비롯해서 수많은 경험과 현상에서 나는 모호함을 발견한다. 그래서 나는 많은 것들을 버리지 못한다. 나에게 버린다라는 행위는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모호함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행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내게 이렇게 수집벽이 생기게 된 이유는 수집하는 것을 즐겨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해서 생긴 습관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대단히 수동적인 수집가이다. 나의 수집품들은 스튜디오 곳곳에 쌓여서 방치된 채로 시간을 쌓아가고, 그렇게 쌓인 시간은 내게 새로운 의미를 강요하면서 다가온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의미는 또 다른 모호함으로 정의되어 진다.

모호함의 '인식' - *Realization*과 '인지' - *Recognition*를 내 작업의 발현으로 연결해 주는 도구는 'Vandalizing'이다. '어떤 것'의 모호함에 대해서 '인식'과 '인지'하는 과정은 직관적인 반면 'Vandalizing'은 고의적이며, 본질적으로 폭력성과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Vandalizing'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발견한 모호함들은 억지스레 정의되어진다. 이는 내가 억지스러운 수집가임을 인정해야하는 것처럼, 내 자신의 다양한 모습들을 스스로가 정의해야하는 상황들에 대한 인식의 선행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선행은 'Vandalizing'이 담고 있는

물리적 폭력성과는 반대되는 개념의 폭력성을 필요로 한다. 내 아파트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과 맨해튼 고층건물의 유리에 필연적으로 비추어지는 내 모습이 자아내는 느낌들의 다른 점을 정의해야하고, 몹시 아꼈던 것들에 대해서 무뎌져가는 내 모습을 합리화시키려는 나를 정의해야한다. 이는 마치 고급 식당에서 지켜야할 매너를 스스로에게 강요하는 것과 흡사하다. 매너는 강제되어지는 룰이 아니라, 남들에게 나를 어떻게 보일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욕심과 자존심에서 지켜지는 부르주아적 자기만족의 기준들이다. 내 작업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자기 만족적 기준들이 스스로에게 강제되어지는 형태를 인식하여 정의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부패한 기억들을 억지로 재생하려는 노력은 사물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집착과 연민으로 나타난다. 갈아내고, 다시 쌓아놓고, 칠해서 감춘 후에 다시 들어낸다. 그렇게 들어낸 것을 다시 상자에 넣고, 유리 밑에 보관한다. 기억할 수 없는 옛 생각이 머물러 있을 법한 사물들에 대한 집착을 억지스레 모아서 다시 포장하고, 프레임해서 어딘가에 올려 놓는다. 스스로에게 강제되어지는 모습으로 발현하여 주변에 남아있는 다양한 사물들을 '수집'이라는 형태로 정의하고, 그 정의된 형태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한다. 외장하드 속에 저장되어 있는 오래된 이미지들은 프린트해서 내용을 지워낸 후에 금속판에 마운트를 하고, 스튜디오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부서진 찻잔은 억지스레 본드로 붙여서 유리 상자에 집어넣는다. 오래된 비누 상자에는 페인트를 덮어 칠하고, 다시 스캔해서 프린트를 한다. 종이에 프린트를 하면 액자에 들어가고, 알루미늄에 프린트를 하면 구부려서 다시 상자가 된다. 스튜디오 한켠에 쌓여져있는 낫쇠막대들과 스테인레스 스틸 상자들을 곱게 갈아내고, 광을 낸 후에 다시 소금으로 덮어서 산화를 시킨다. 물에 반쯤 녹아서 재결정된 소금은 서서히 독기를 뿜어내면서, 마치 망각의 모퉁이를 잡고, 억지로 스스로를 발현시키려는 듯 금속의 표면을 서서히 산화시켜간다.